

하나님의 모략 1

머리말

나의 희망은 예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는 것이다. 특히 그분을 이미 안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이미 안다고 믿는 그런 가상의 친숙함이 생소함을 낳았고 생소함은 경멸을 낳았고 경멸은 심각한 무지를 낳았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께 헌신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최선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일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인생에 대한 절대적 정보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모든 의미있는 변화는 삶의 실제적 통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무조건 배제하려는 사고와 개념을 깨뜨림으로써 가능하다.

궁극적인 설명이 어떻게 나오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자신의 삶에 진정 중요한 요소라는 확고한 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차적 방편으로 정치와 사회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은 점점 더해가면서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더 약해진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실제 생활과 무관하게 여긴다는 점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인격 성숙과 인간의 총체적은 건강 및 행복과는 실제적으로 무관하게 된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신 선물이지 학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나오며 또한 그 영양분을 준다. 성경의 취지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지성을 활용해 신중하게, 집중하여 솔직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즉 난해한 유행성 이론이나 지성을 배제한 소위 정설에 지배받지 않는다면 성경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그 외의 어떤 접근도 나는 예수와 및 그의 전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림에 어긋난다고 믿는다.

1장 영원한 삶의 현재성

암흑속의 삶

최근 한 조종사가 제트 전투기를 타고 고속 선회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급상승 하려고 제 어기를 돌렸으나 비행기는 지상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기체가 상하 전복된 상태였음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 시대의 인간 실존에 대한 좋은 비유다. 추락하는 이들의 수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추락하고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 개개인 대부분과 세계라는 사회 전체는 종종 전복 비행인지 정치 비행인지도 까마득히 모른 채 고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양자 간에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또는 적어도 알 수 없거나 상관없다는 강한 의혹에 사로잡혀 있다.

그 의혹은 지금 서구 학계의 최고 지식층 사이에 불문의 교의로 세력을 떨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데렉보크(Derek Bok)는 1986-1987년 “총장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계 및 정계의 몇몇 유명 인사들의 도덕적 실패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졸업생들의 도덕적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종교 단체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젊은이들에게 기본 가치관을 심어줄 힘이 없다. 윤리 기준의 대대적 붕괴로 풀이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버드를 포함한 각 대학은 과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크는 과거에만 해도 “교육의 목표는.....널리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길러 주는 데 있었다....”고 지적한다. 보크 총장은 “학생 개개인 및 사회 전체의 도덕성 개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고 말할 수 없다....특히 규모가 큰 대학 일수록 교수진과 대학 본부는 이 주제를 지속적인 토의와 단호한 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크가 지적한 것처럼 교육자들의 의지가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버드 야드를 가로질러 에머슨 홀로 가서 이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 봤어도 그는 도덕성 개발 작업의 기초가 될 공인된 도덕 지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하버드 정신의학 및 의료 인문학 교수이자 사회문제와 도덕 문제에 대한 저명한 연구가요 해설가인 로버트 콜스(Robert Coles)는 <고등 교육 신문>에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지성과 성품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라는 기사였는데 “중서부 중산층 배경”의 한 여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경제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그녀를 일말의 예의나 존중도 없이 매번 함부로 대했으며 거칠고 야비하게 굴 때도 많았다. 특히 한 남학생은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수작을 걸기도 했다. 두 사람은 두 개의 “도덕 논리”과목을 함께 들었는데 그 남학생은 매번 뛰어난 성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런 유의 취급이 계속되자 여학생은 마침내 일을 그만 두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 여학생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콜스 교수는 그 여학생에게 어깨를 으쓱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며 급우이든 누구이든 교실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수작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그가 한 번도 말해 본 일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는 성품과 지성의 연결이라기보다 지성을 도덕적 영적 실체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품은 이미 지성과 연결돼 있다. 실은 그것이 문제다 지성 안에 무엇이 들어 있고 들어 있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런 지식이 통용되는 현 세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규범은 고사하고 도덕 이론이나 원리의 진상조차 알 수 없다.

이미 전복 비행중인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똑똑함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관념의 위력은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시간과 함께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언젠가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관념이다.”

관념만의 위력은 지식인들이 흔히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문제요 또한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중을 오도하는 문제다. 그들은 인간 생활의 가장 위력적인 요인인 관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에 끊임없이 시녀가 된다. 그들이 관념을 어떻게 취급하며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 세상 모든 분야로 철저히 침투해 들어간다. “세속 인본주의”는 어떤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관념 운동이며 그 앞에서는 개인들 전체도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적인 것”의 천박성과 현재 삶과의 무관성이야 말로 관념만의 위력으로 우리를 오도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무의미한 지적 휘장은 일상생활을 구석구석 뒤덮고 있다. 사건, 사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도 어찌할 바 모르는 갖가지 가능성과 위협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며 방향을 흐려 놓는다.

광고 유행어 정치구호 루머 등이 우리의 정신적 영적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것들은 마치 짙은 색 양복에 보푸라기가 달라붙듯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달라붙는다. 우리를 장식해준다. 우리는 셔츠와 모자 심지어 바지 엉덩이 부분까지 자진해서 그런 메시지로 꾸미고 다닌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조용한 그러나 조용하지 않은 “소음”에 흠뻑 젖어 산다. 사람들이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셔츠나 모자나 신발로 자신의 실체를 외부에 알리려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

과거에 믿었던 것들이 산산 조각나 폐허가 되자, 선과 의와 수용 그리고 방향을 향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범퍼 스티커 슬로건, 문신, 선물 가게의 화려한 문구 따위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심각한 전복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당장은 심오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진정 심오한 것이 바보 같고 하찮고 심지어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 정작 바보 같고 하찮은 것이 심오한 것으로 통한다. 전복 비행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다른 실체가 전하는 말

그러나 어둠 속에도 한줄기 빛이 희미하게 비취고 있다. 우리는 초청을 받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전 시대와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

예수는 자신을 생명,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전 시대와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러나 이처럼 지혜롭고 유효한 그 생명의 진입로가 오늘날 선의의 그릇된 정보의 먹구름에 가려져 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자주 불려지는 곳을 지배하는 복음은 죽음을 대비하는 문제 또는 사획구조와 관행을 바로잡는 문제만 언급한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통상 말하는 “복음”이란 사실상 일상의 실존의 장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라는 집요한 초청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고작 “천당가게”하는 것 인가? 죽어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시간을 위한 기쁜 소식은 과연 없는 것인가? 기막힌 보험이 있는 고장 난 차와 제대로 달리는 차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

야로슬로프 펠리칸은 “나사렛 예수는 거의 20세기 동안 서구 문화사의 중심인물이었다. 만일 어떤 초강력 자석이 있어 역사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은 쇠조각을 올 때에 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남을까?”

인간에 대한 예수의 영속적인 관련성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그분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주요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상을 살다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분의 이름이, 심지어 욕설로까지 더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세계인구의 33.6%-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그분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결국 우리는 예수의 영속적인 관련성의 기초가 개개인의 인간 조건에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입히시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그분의 능력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루하루 주변 환경에 대응하며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셨고 지금도 가져다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의 삶에 온전함을 약속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지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심으로 영원한 질의 삶을 나누어 주신다. 생명의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현재 모습이 있는 그 자리로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예수의 영속적인 관련성의 비밀이다.

사람의 본성은 어린꼬마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자기만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거나 잠시라도 차인의 생각 속에라도 그렇게 남고 싶어 한다. 갓난아이 때부터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시작해서 점차 엄청난 관심욕구로 커지는 이 중요성에의 갈망은 결코 자기중심적(egoism)인 것이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매사를 자기를 통해 본다. 자기의 시야에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인물이다. 자기중심성이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을 말한다. 일종의 심한 자의식으로 오직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다.

자기중심성과는 달리 중요성에의 갈망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단순한 연장선이다. 이 중요성에의 갈망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선을 향해 외부로 지향한다.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지음 받았고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지음 받았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하셨다.

중요성에의 갈망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신호이자 예수께 대한 인류의 영속적인 반응의 기초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간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자신이 백성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과 자신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었다. 예수는 보통의 인간 실존 속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 선포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분의 손길에 힘입어 그분의 통치 또는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그 충족한 은혜를 받아 누렸다. 예수의 활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통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해 계속 뻗어 나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함께 일하신다.

다스리도록 지음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 안에 주어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안에 “나라” 또는 “정부”-모든 사건이 나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나만의 독특한 영역-가 있다. 여기에 인간 조건의 폐부를 찌르는 진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적 영역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요 피조물 인간의 기본 숙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하도록 영원히 독특한 기름 부음을 받은 끊임없는 영적 존재이다. “나라”란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이다. 우리가 진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마다 우리의 나라 안에 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직무 설명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생명체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책임 맡은 존재다.(28-30).

우리의 현재 관점에 얼마 현실성 있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간 본질이 그분과의 의식적 인격적 상호 책임의 관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빛으심으로써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춰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만 즉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에만 다스림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잃은 인간의 본능적 목표는 결길로 빠지게 돼 있다. 인간의 욕망에서 말미암은 사회적 개인적 혼돈이 그 증거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으시며 우리에게 진정 결정권이 있는 작은 것에서 그분께 충실하도록 지금도 개개인을 부르신다. 그리하여 매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삶의 점점 사이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여기서 그분께 충실하면 그분도 충실함으로 우리에게 협력해 오심을 우리는 배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유효한 통치를 하루하루의 구체적 실존속에서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존재와 처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통치나 지배는 그만큼 커지게 돼 있다. 창조의지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한없이 더 큰 부분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법을 작은 일들에서 배워 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처음부터 예비해 두신 그 나라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통치”란 곧 그분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

역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 및 의지를 행하시는 것이지만 천부적이든 선택적이든 그 원리에 복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그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실체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차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거기에 있을 수 있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통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인간을 다스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의식의 “내면” 세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그 나라가 존재케 해달라고 기도 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즉 현재 배제돼 있는 개인 사회 정치 질서의 모든 영역까지 그 나라가 장악하게 해 달라는 기도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일상의 존재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로 그 나라를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로 그 나라를 그 현장으로 불러 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총체적 통치 안에서 우리를 창조 하셨고 우리 각자에게도 당신처럼 의지의 영역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시작해 밖으로 뻗어 나가며 궁극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얼마든지 열려 있는 차원까지다.

예수는 인간 본연의 삶을 보이시고 가르치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의 아주 조용히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 주셨으며 인간들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도록 당신의 모략을 실행에 옮기셨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임재를 믿음으로써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작은 영역을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 속으로 다시 통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능동적 통치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행위는 그분의 영원한 역사의 한 요소가 된다.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또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체가 아니거나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요18:36). 예수의 말씀처럼 그 나라는 끊임없이 인간 생활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말로 인간의 어떤 체계보다도 실재하며 임재성이 더 강하다는 말이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용서와 새 생명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이제 예수처럼 그 치의 전달자가 된다. 예수는 자신을 비난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11:20) 그 나라는 예수의 인격을 통해 찾아와 예수의 행동을 통해 역사했다.

예수의 기본 메시지에 담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들도 천국과 함께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둠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려는 많은 개인들의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허용하신다. 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인간은 전쟁, 식량난, 압제와 같은 인재에 시달릴 뿐 아니라 질병, 기근, 기상,

재난 등 소위 수많은 자연 재해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이렇듯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현재 통치에 관한 한 “이미 여기”와 “아직”의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는 현재 상황을 시편 23편이 잘 보여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악,evil)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엄연히 여기에 존재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분명 “원수”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노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하다.

때로는 이미 영생을 얻은 이들 곧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삶이 이미 그 안에 임재하고 자라는 이들의 작은 나라와 삶 안에도 정작 하나님의 실제적인 유효한 통치가 시행되지 않고 아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빌라 테레사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 영혼의 내면의 성에는 많은 방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시간과 공간을 주시며 그 방들을 서서히 점령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의 결정적 측면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 나라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해 왔다. 다만 기쁨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의 공생애를 기점으로 그분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과 처한 자리 그대로 맞아 주는 나라요 우리의 보통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뒤바뀌게 해주는 나라다. 그 나라는 너무나 가까워 누구든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를 우주의 주요 생명의 주로 부르는 자는 반드시 들으심을 얻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부르기도 들으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집, 그분의 “에코스”(ecos)안에 살고 있다(히3:4). 흔히들 그것을 “우주”라 부른다. 그 우주는 그분으로 온전히 충만하다. 그분의 자리요 그분의 “나라”이며 우리의 현 생활이 그분의 자비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을 이해 할 때에만 인간 실존의 진정한 생태학에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때에만 인간 존재의 참 실체를 바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 그분의 사업이며 그분의 주도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